

# 제14회 한용교포장인상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운영욱)는 지난 2월 25일 '포장인의 날'을 맞이해 제14회 한용교 포장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14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는 장학생 부문 ▲ 최우석(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 서예슬(용인송담대학 포장코디네이션 전공) ▲ 곽주현(순천청암대학 물류패키징과) 학생이 수상했으며, 일반 부문은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한용교포장인상은 한국포장협회 한용교 명예회장이 희사한 재원으로 포장인들에게 연구의욕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 포장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지난 1996년 제정됐다.

본 고에서는 제14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들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 제14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

장학생부문                      최우석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장학생부문                      서예슬    용인송담대학 포장코디네이션 전공

장학생부문                      곽주현    순천청암대학 물류패키징과



# 미래 패키징 업계 선도할 터

## 친환경 패키징분야에 관심 가져야

최우석 /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제** 14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 수상자로 선정, 수상하게 된 최우석 학생은 한용교포장인상과의 인연이 남다르다.

다름아닌 지난 해 제13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장에서 장학생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연세대 패키징학과 수상자가 참석을 못해, 최우석 학생이 대리수상하며 “내년 한용교 포장인상을 꼭 수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앞선 수상소감을 전했다.

그는 약속대로 올해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으로 선정되면서 수상을 기쁨을 안게 됐다.

최우석 학생은 2년 먼저 패키징학을 공부한 친형의 도움과 조언으로 패키징학과를 선택하고 공부하게 됐다.

그는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제8대 부회장을 맡으면서 ‘패키징인의 밤 행사’, 코리아팩 전시회, 도쿄팩 전시회 참관 등 많은 활동을 통해 패키징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미래 패키징”을 선도할 꿈을 갖게 됐다.

특히 그는 식품포장연구실에 있는 친형의 권유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굳지 않는 ‘맞춤떡 포장용기 개발’ 프로젝트」의 연구원으로 참가, 연세대 이윤석 교수의 지도 아래 2009년 12월 과제가 종료될 때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포장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포장학에 매료됐다.



▲ 한용교포장인상 수상 후 소감을 전하고 있는 최우석 군



많은 사람들이 패키징학문을 낯설어 하는 것에 대해 최우석 학생은 “패키징학은 마치 조개속의 진주처럼, 마치 아프리카 땅에서 얻는 다이아몬드처럼 지속적으로 다듬고 발전해 간다면 무궁무진한 발전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패키징학은 수많은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패키징학을 공부하면서 여전히 많은 회사의 포장 관련 부서들이 아직까지 패키징학과가 있는지, 한국에는 포장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아쉬움을 느낀다는 최우석 학생은 “저를 비롯한 많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선배님들이 포장학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열심히 하는

포장계의 후배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수많은 인재들을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현재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친환경 패키징”.

최우석 학생은 “세계에서 이슈화 되는 환경을 무시한 채 패키징학을 공부하고 발전한다면 그것은 우물 안 개구리보다도 못할 것”이라며 “세계의 흐름

이 환경을 중요시 여기고, 또한 국가 정책 또한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패키징학은 환경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어디서든지 성실한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포장업계의 후배들을 옳은 길로 이끌고, 선배들을 따라 패키징 발전을 이끄는 한명의 수레꾼이 되어 미래의 패키징의 길을 밝히고 싶다고 말하는 최우석 학생.

‘언제나 성실히 하면 끝에는 웃는다’라는 생각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패키징 발전을 이끌어 나갈 그의 행보를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



## 패키징 분야 인력양성 피력

### 포장코디네이션 전공 홍보 기대

서예슬 / 용인송담대학 포장코디네이션 전공

“패키징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신 덕분에 한용교포장인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수상이 패키징학을 공부하고있거나 패키징 전공을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분들께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용교포장인상 수상 후 소감을 전하고 있는 서예슬 양

제14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서예슬 학생은 현재 용인송담대학에서 포장코디네이션을 전공하고 있다.

그녀는 패키징이 단순하게 감싸는 ‘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패키징을 통한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 등을 배우고 싶어 전공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포장코디네이션 전공을 통해 더 심화된 패키징 관련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

현재 서예슬 양은 교내 창업캠프에 참가하고, D,P&E라는 창업동아리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시공사에서 주최했던 홈&테이블 데코페어 2010에 참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전공과 관련된 교내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패키징 분야는 배우면 배울수록 깊이 빠져들게 하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패키징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패키징을 통한 마케팅, 패키징이 미치는 광고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선물포장의 경우는 주는 사람의 정성까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패키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계기가 되



었습니다.”

패키징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그녀는 앞으로  
도 여러 사람들이 패키징의 매력을 함께 공유해  
패키징 분야에 젊은 인력이 많이 양성되기를 기  
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는 포장코디네이션관련 학과  
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내 패키  
징관련 학과가 많이 신설되어 패키징의 중요성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서예슬 양은 패키징학과의 발  
전을 위해 패키징관련 기업체에  
서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포장  
재료를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  
람을 갖고 있다.

또 학교 차원에서의 포장코디  
네이션 전공에 대한 홍보나 적극  
적인 지원도 부탁드립니다며 당차  
게 전했다.

“포장코디네이션 전공을 홍보  
를 해서 패키징학에 젊은 인력  
을 많이 양성을 하는 용인송담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패키징을 사랑하는 그녀의 바람  
이다.

졸업 후, ‘제빵기사’에도 도  
전하고 싶다는 서예슬 학생은  
대학생활 동안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제빵 포장을 하면

서 포장이 고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우  
게 되었다며 빵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패키징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꿈을 향해 도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패키징을 사랑하는 그녀의 바람대로 국내  
대학 내 패키징관련 학과가 다양하게 신설되  
기를 기대해 보며, 서예슬 양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ko]



## 농수산물 친환경 특수포장 관심

호남지역 생산확대 기여하고 싶어

곽주현 / 순천청암대학 물류패키징학과

**제** 14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순천청암대학 물류패키징학과 곽주현 학생은 “부족한 저를 포장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인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으로 추천 해 주신 교수님들과 많은 포장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이 분야의 공

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의 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상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곽주현 양은 대학진학에 고민할 당시 평소에 존경하던 영어 선생님께서 “향후 대한민국에서 중요하게 발전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물류정보 분야와 포장과학”이라는 조언을 듣고 패키징학과를 선택하게 됐다고 전한다.

무엇보다도 패키징을 공부하는 학과가 전국에서 4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미래의 전망성과 희소성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청암대학 물류패키징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곽주현 양은 물류유통관련 연구 개발 동아리는 ‘블루웹동아리’ 활동을 통해 2년 동안 동아리의 연구개발 분야를 담당, 최근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사진동영상 제작과 커플패션을 온라인 유통판매를 하는 ‘e-뷰포인트’는 동아리 멤버 모두가 제품 개발에서부터 상품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여 성장시키고 학과 전통적으로 이어나가는 대학생



▲ 한용교포장인상 수상 후 소감을 전하고 있는 곽주현 양



향후 곽주현 학생은 포장기술 연구실에 입사해 친환경 특수 무공해 포장재를 이용한 차별화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생산에서 포장 라인구축, 포장디자인 마케팅까지 원-스톱 처리 분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에 편입하고 향후 능력이 향상된다면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 같은 곳으로 유학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싶다고

창업회사로 기존 2학년 선배들의 따뜻한 조언과 자상한 지도로 회사 운영과 영업부문, 고객관리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곽주현 학생은 “패키징학이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능성을 가미한 새로운 패턴의 포장 과학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학문 분야라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녀는 호남지역의 특화분야인 농수산물 친환경 특수포장(Speciality Packaging)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를 연구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호남지역이 예로부터 낙후된 농업기반 중심의 산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소비중심적인 정체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전략적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화된 물류유통정보 분야를 육성하여 미래지향적인 전략산업단지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산적인 산업 지역으로 바뀌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전했다.

“물류와 융합된 RFID형 물류자동화서비스 관리나 지역 농수산물 해외 수출 시 무역관리 서비스 대행, RFID 적용 특수포장제품 이력정보관리 지원, 국내외 판매 유통 SCM시스템 개발 구축 등에 대해 관심과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포장이 환경에 미치는 과학적인 분석을 수치화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 시켜나간다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부분의 친환경 포장 상품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한 포장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새로운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내의 유일한 물류정보 분야와 포장공학 분야의 융합전문가가 되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활성화와 우리 지역의 낙후된 물류유통 산업을 발전시켜 살기 좋고 행복한 호남지역을 만들기 위한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고 싶다고 전하는 곽주현 학생.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이 가득한 그녀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